남도의 봄 달리며 마라톤 갈증 풀었다

제5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코로나 확산 방지 참가자 제한
10㎞·20㎞ 구간으로 나눠
광주 승촌보 일대에서 레이스
동호인들 위해 참가비 무료 운영

제5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3일 오전 광주 남구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모처럼 열린 전국 대회에서 마라톤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승촌보(영산강 문화관 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5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 행사가 열려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마라톤의 대명사로 통하는 이 대회는 광주일보, 전남문화, 아시아문화가 주최했다.

마라톤 저변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 마라톤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참가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열려 뜻깊었다.

주최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가자를 제한한 데 이어 풀코스를 없앴고 마라톤 코스도 지하철 2호선 공사 등으로 번잡한 도심을 피해 승촌보 구간으로 변경했다. 마라토너들이 영산강변을 달리며 자연을 호흡하고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회는 비경쟁으로 치러졌지만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적절한 레이스 거리를 유지하며 마라톤을 즐겼다. 대회 주최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자들을 8명씩 나눠 출발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를 운영했다.

마라토너들은 이날 10㎞, 20㎞(하프코스) 구간으로 나뉘어 레이스를 펼쳤다. 승촌보~나주대교(10㎞반환)~영산교(하프반환)~승촌보를 거치는 코스를 달렸다. 참가자들은 오전 7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출발선을 나섰다. 주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출발 시간을 오전 7시로 정하되, 7시30분까지 출발시간을 충분히 연장해 나눠 출발하도록 했다.

건각들은 안전한 방역환경을 구축한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대부분 대회가 취소돼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동호인들의 무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km 코스를 완주한 김여일 러닝크루 (Running Crew) '너랑나랑하랑'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마라톤 대회가 열려 감회가 새롭다. 달리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참가했는데, 함께 온 8명 회원 모두 완주에 성공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함께 달리고 싶어하는 새로운 러너들이 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더 다양한 대회가 열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주최측은 물론 참가자들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과 절차를 준수했다. 주최측은 대회 참가자만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고 대회장 전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대회 당일 발열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참가를 자제해줄 것을 사전에 당부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5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3일 오전 광주 남구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일원에서 열렸다. 무등마라톤클럽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로를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 독립 만세!"

무등마라톤클럽 22명 3·1절 광주일보 전국마라톤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 외치며 코스 완주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만세!"

'제57회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 3일, 승촌보에서는 뜨거운 '독립 만세' 함성이 쏟아졌다.

무등마라톤클럽(회장 양돈승)은 이날 3·1절을 기념해 열리는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 취지에 동참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비록 코로나 19로 마라톤대회가 늦춰졌지만 뜻깊은 3·1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렀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1919년 당시 복장인 두루마기와 저고리를 입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다. 옷뿐 아니라 신발과 양말, 모자, 악세사리 등 일본 제품은 전혀 걸치지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22명 회원들은 이날 10km 코스에 도전해 전원 완주에 성공했다.

양돈승 회장은 "늘 운동복을 입고 달리다가 한복을 걸치고 뛰니 힘들었을 텐데, 낙오 없이 모두가 완주에 성공해 기쁘다"며 "3·1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기르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등마라톤클럽은 2년여 전부터 태극기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자 그동안 꿈꿔왔던 퍼포먼스를 실행할 수 있었다.

양 회장은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는 일반 달리기 대회와는 다르다. 3·1절을 기념해 나라를 잃은 서러운 역사를 안고 달리는 대회다"며 "일제 강점기에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태국기를 달지도 못하고 뛰었다.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조국과 독도를 수호하자는 의지를 다지고자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에 가까워진 데도 희망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 신규 달림이 유입이 적은 탓에 마라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마라톤 인구를 더욱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 대회에서는 광주시 내 5개 마라톤 단체가 힘을 합쳐 다같이 운동하는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며 "우리 달림이들은 순국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IA, 수비가 '비수' 됐다

프로야구 개막 2연전 LG에 0-9, 2-3 패배
김선빈 연속 실책·나성범 포구 실패 이어져

KIA 타이거즈가 개막시리즈에서 승리 선물을 하지 못했다.

KIA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와 치른 개막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수비싸움'에서 밀리면서 패배를 안았다.

2일 개막전에서는 김선빈의 연속 실책에 경기 흐름이 기울었다. 0-0으로 맞선 5회 1사에서 2루수 김선빈의 연속 실책이 나왔고, 양현종이 4실점을 하면서 '비자책' 패전투수가 됐다.

0-9의 일방적인 패배가 기록됐던 개막전과 달리 3일 경기는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에도 승패를 가른 건 수비였다.

내·외야에서 LG 선수들의 호수비가 이어졌다.

선발로 나온 션 놀린이 1회 첫 타자 박해민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이후 3안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했다. 3회에는 1사에서 박해민에게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맞으면서 0-2.

KIA가 3회 소크라테스의 한방으로 추격에 나섰다. 전날 개막전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가 이날 두 번째 타석에서 이민호의 145㎞ 직구를 우중간 담장으로 넘겼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함께 KBO리그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4회 수비에서 희비가 갈렸다.

놀린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3회 1사에서 투입됐던 윤중현이 4회 2사에서 루이스에게 좌전안타를 맞았다. 이어 문보경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향했다. 아쉽게 나성범이 바로 포구를 하지 못했고, 김민성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1-3이 됐다.

KIA가 4회말 김민식의 우측 2루타와 박찬호의 적시타로 1점은 추격했지만, 선두타자로 나왔던 김석환의 어려운 타구를 좌익수 김현수가 잡아내면서 대량 득점의 기회를 놓쳤다.

7회말 1사 1루에서는 유격수 오지환이 박찬호의 잘 맞은 타구를 낚아채 흐름을 끊었고, 8회에는 오지환이 다시 선두타자 최형우의 텍사스성 안타까지 잡아냈다.

KIA는 이어 황대인의 중전안타와 김석환, 대타 고종욱의 연속안타로 1사 만루를 만들었지만 박찬호의 땅볼 타구가 1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아웃카운트 2개가 동시에 올라갔다.

7회 전상현을 시작으로 장현식과 정해영이 무실점으로 불펜을 지키면서 2-3에서 KIA의 마지막 공격이 전개됐다.

김도영이 개막전에 이어 이날 5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소크라테스가 우전 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이어 김선빈의 타구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박해민이 슬라이딩 캐치로 안타를 플라이로 바꾸면서 KIA를 울렸다.

다시 한번 호수비에 막힌 KIA는 나성범의 좌중간 2루타와 최형우의 고의 사구로 2사 만루까지 갔지만, 류지혁의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1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KIA에는 가슴 철렁했던 장면이 있었다. 0-2로 뒤진 3회초 1사 1루에서 놀린이 김현수의 타구에 바로 왼쪽 팔꿈치를 맞고 주저앉았다.

놀린은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골절 부상을 피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100% 관중석이 열린 챔피언스필드에는 2일 1만6742명, 3일에는 1만124명이 입장해 다시 찾아온 야구의 계절을 즐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경남에 2-1 역전승 … 연승 '시동'

광주FC가 연승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광주가 3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2 2022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 역전승을 거뒀다. 이순민과 허율이 마수걸이 골을 기록했고, 이으뜸은 시즌 3번째 도움으로 승리를 불렀다.

전반 38분 광주가 페널티킥을 허용, 먼저 점수를 내줬다.

페널티지역에서 경남 티아고와 몸싸움을 하던 두현석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티아고가 키커로 나서 광주 골대를 갈랐다.

전반 막판 이순민이 바쁘게 움직였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가 헤더로 뒤로 보낸 공을 이순민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경남 골키퍼 고동민의 선방에 막혔다. 이순민이 전반 추가 시간에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초반 양 팀 골키퍼들이 호수비를 주고 받았다. 후반 8분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역습상황에서 나온 에르난데스의 왼발 슈팅을 쳐내면서 실점을 막았다. 2분 뒤에는 광주 박한빈의 매서운 슈팅이 경남 골대로 향했지만 고동민의 호수비에 막혔다.

후반 17분 앞서 몇 차례 기회를 놓쳤던 이순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왼쪽 측면에서 이으뜸이 띄운 공을 골키퍼가 쳐냈고, 공을 잡은 이순민이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을 갈랐다.

이어 앞서 전반전에 경고 카드를 받았던 경남 티아고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가 다시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수적 우위를 점한 광주는 후반 43분 허율의 머리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으뜸이 왼쪽에서 왼발로 공을 띄웠고 문전에 있던 허율이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떨궜다. 바운드 된 공은 경남의 골망을 흔들면서 2-1이 됐다.

이후 광주는 3분의 추가 시간을 지키면서 앞선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 이어 연승에 성공했다. 1점 차 1위 부천도 대전에 2-1로 이기면서, 순위는 그대로 2위를 유지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전남은 지난 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6경기 연속 무패(3승 3무)를 기록했다.

전반 서울이랜드의 공세에 시달린 전남은 33분 이동률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11분 플라나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맞았지만, 공세 수위를 높인 전남이 후반 26분 기회를 잡았다. 상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박인혁이 키커로 나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